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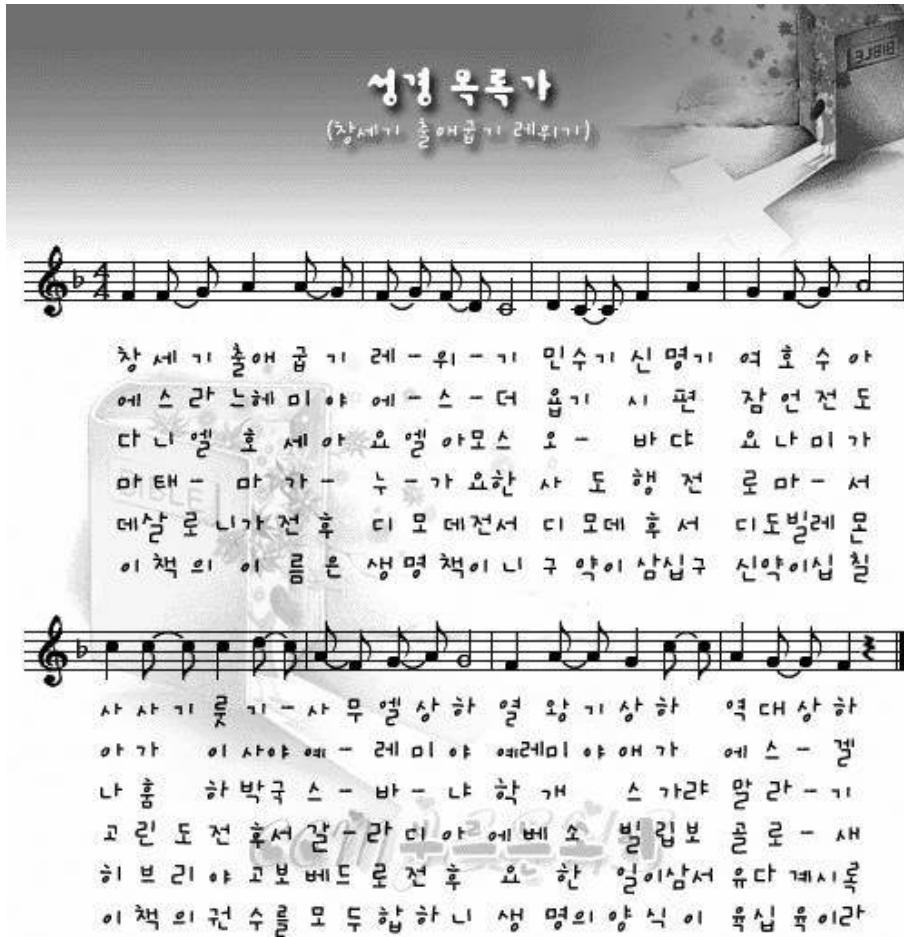
# 성경대탐험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중심으로

한 성 훈 목사

들어가기 전에...

<성경목록가 외우기>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 세 기 출 애 곱 기 레 - 위 - 기 민 수 기 신 명 기 여 호 수 아  
에 스 라 느 헤 미 야 에 - 스 - 더 읊 기 시 편 잠 언 전 도  
다 니 엘 호 세 아 요 엘 아 모 스 오 - 바 다 요 나 미 가  
마 태 - 마 가 - 누 - 가 요 한 사 도 행 전 로마 - 서  
데 살 로 니 가 전 후 디 모 데 전 서 디 모 데 후 서 디 도 빌 레 문  
이 책 의 이 름 은 생 명 책 이 니 구 약 이 삼 십 구 신 약 이 십 칠

사 사 기 름 기 - 사 무 엘 상 하 열 왕 기 상 하 역 대 상 하  
아 가 이 사 야 예 - 레 미 야 예 레 미 야 애 가 에 스 - 겔  
나 흠 하 박 국 스 - 바 - 나 학 개 스 가 라 말 라 - 기  
고 린 도 전 후 서 갈 - 라 디 아 에 베 소 빌 립 보 골 로 - 새  
히 브 리 야 고 보 베 드 로 전 후 요 한 일 이 삼 서 유 다 계 시 록  
이 책 의 권 수 를 모 두 합 하 니 생 명 의 양 식 이 육 십 육 이 라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이해와 태도>

- 1600여년 기간동안 40여명의 저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 성경(원본)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고전 2:13, 살전 2:13, 딤후 3:16).
- 성경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다.
- 오늘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참고 자료. 성경이 신화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예수는 신화다> 저자 티모시 프리크, 피터 갠디 : 기독교와 헬라 이방종교 사이에 유사점 너

무도 많다고 주장

“신화는 형태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 소아시아의 아티스 신화,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신화 등 이 세상의 모든 신화는 근본적으로 같다.

<예수는 없다> 오강남 교수 : “유대교 사상에다가 희랍의 밀의 종교나 철학 사상을 결합시켜 생겨난 합작품”

- 예수의 부활과 영생

; 고대 이집트 종교에 나오는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 이야기와 비슷하다

(호루스도 어머니 이시스의 도움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비판>

①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다른 종교에 매우 배타적이었다.

타종교,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식민지였지만 로마와도 끊임없이 마찰, 유대인들은 헬라문화에 개방적이지 않았음. 그런 초기 기독교가 이집트나 헬라 종교의 요소를 답석 받아들이 부활과 영생의 교리 만들었을까?

② 유대교는 디오니소스 종교를 혐오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 가지고 있었다.

B.C 167년 셀루키스의 식민지 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악랄한 왕)가 디오니소스 기념행사(디오니소스 상징하는 담쟁이 화환을 몸에 걸치라 강요)를 하며 유대인들을 탄압한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원수의 종교의 교리 가져왔겠는가?

③ 헬라종교: 영혼의 부활만, 기독교: 영혼과 육체의 부활,

당시 고대 종교들은 다신교,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④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 신화에는 사실적 요소가 없고 역사적 배경도 없다.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이야기. (제우스가 아들 디오니소스가 위협을 느끼자 염소새끼로 변신시킴,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 제우스의 넓적다리에서 태아를 키운다, ) 여기에 비하면 복음서 내용은 로마제국 치하라는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빌라도 같은 인물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복음서가 신화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단조롭다. 예수 탄생의 경우도 성령의 잉태를 빼면 판타지 요소는 거의 없다. 오히려 위경들이 신화적 요소가 강하다. (도마복음: 예수의 유년시절 소개하는데 진흙으로 참새 열 두 마리 만들어 날려 보냈다, 예수의 어깨를 부딪힌 아이들 저주하여 죽게 만든다...)

⑤ 예수 승천 이후 곧 예수 신앙이 확산되었는데 예수 신화 급조할 여유 있었나?

정훈택 교수(총신대) “예수가 신화의 짜깁기라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각 지역의 신화를 다 알고 있었으며, 다른 시대 신화적 요소들을 모두 통합하고 게다가 수학적 지식과 천문학적(점성술) 지식을 모두 배우고 수용해 단기간에 ‘예수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결론이 나온다”

## <개혁주의 성경관>

### 1. 하나님의 말씀

#### 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 성경 자체의 증거(“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마 1:22)”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행 1:16) 등 여러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도구로 하여 대언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성경의 두 요소: 신적 요소(하나님의 말씀), 인간적 요소(선지자나 사도들이 말함)

### 2. 성경의 영감

#### 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 1:21)

#### ② 성경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특별한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났으며 정확무오하다.

③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감과는 다르다.(성령의 영감은 성경 기록할 때 나타난 것이고, 성령의 조명은 일상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이다.)

④ 성경의 일부를 부인하거나, 폐기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마르시온: 구약을 부인하고 신약 일부만 수용,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비하)

⑤ 외경(토빗, 유딧, 마카비, 집회서, 바룩서)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 권위도 없다.(가톨릭에서는 제2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신약 외경으로는 유다복음, 도마복음 등)

### 3. 개혁주의 영감론

#### ① 영감의 범위: 축자 영감(성경사상 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

- 잘못된 영감론: 사상 영감(성경 저자의 사상에 한해서 영감이 이루어졌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 성경의 영감 범위를 교리와 도덕에 한정시킨다. 영감의 범위 줄어듦)

- 축자영감 따른다고 해서 문자적 해석에 매몰되어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해석을 무시하지 않는다. (문자를 무시하는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 해석을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자적 해석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마치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영감의 방법: 유기적 영감(성경 기록을 할 때 인간적 요소(성경, 문체, 시대 상황 등)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면 성령의 저자됨을 부인하게 될 소지도 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 잘못된 영감론: 기계적 영감론(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수동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4. 성경의 특성

① 자증(自證):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보다 교회 권위가 높고 무오하다고 주장.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성경만이 정확무오하고 교회는 오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참 교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

워지기 전에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보다 권위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무엇도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성경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드러낸다. 이것이 성경의 자증(自證)이다.

② 명료성: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만 우리가 때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로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있기 때문.

③ 충족성: 우리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로마 가톨릭처럼 외경이나 교회전통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④ 필요성: 우리 실생활에서 성경은 꼭 필요하다. 보조수단이 아니다. (성경중심의 생활)

<신, 구약의 관계> (기독교강요 제2권, 10장 11장 참조)

★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요5:39).

→ 아담 이야기(구원자가 필요하다.) 아브라함(“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실 구원자를 말하고 있다.) 모세(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 그리스도의 모형) 다윗(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렘 33:14),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함.

★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약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

→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지킬 필요가 없는가?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규범이다.(형식은 변할 수 있으나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 이삭 흘리기,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정신 유효)

#### 신구약 공통점

- \*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요8:56)
- \* 구약 백성도 복음을 들음(갈 3:8, 히 4:2)
- \* 구약 백성들도 영생(천국)을 소망(히11:16)

#### 신구약 차이점

| 구 약                                                         | 신 약                                          |
|-------------------------------------------------------------|----------------------------------------------|
|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킴 <sup>1)</sup>                                  | 율법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함<br>(렘 31:31-34)              |
|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 미완성<br>(요 5:39, 5:46),<br>어린아이상태 (눅 10:34) |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 <sup>2)</sup>                   |
| 지상에서 받는 축복이 두드러짐                                            | 구약의 현세적 축복은 천상의 복으로<br>인도하는 수단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복임 |
| 구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율법 지킴<br>(히 12:18-24)                         |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br>(롬 8:15)                 |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                                               | 모든 민족으로 확대 (갈 3:28)                          |

결론: 신약 백성이 훨씬 큰 축복 (왜 이렇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혜롭고도 정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칼빈, 기독교 강요)

<성경을 보는 관점>

1. 하나님 나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                  |
|-----------------|------------------|
| 세상 나라           | 하나님 나라           |
| 힘(Power)에 의한 지배 | 사랑(Love)에 의한 지배  |
| 권력과 돈에 의해 움직임   | 나눔과 섬김, 헌신으로 움직임 |
| 소수의 억압과 착취      | 하나님의 희생          |
|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 자발적 순종 (삼위일체 모형) |
| 불의한 사회 구조       | 정의와 평화 실현        |

- 첫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에덴동산 → 세상 전체로 확장되기 원하심
- 죄가 들어옴: 악의 세력이 침투해서 망가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
- 하나님 나라(셋 계열)와 세상 나라(가인 계열)가 역사의 두 물줄기를 이룸(혼합되면 망한다, 창6장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반해 결혼, 이세벨에 의해 오염된 이스라엘)
- 마지막: 망가진 세상의 회복, 에덴동산보다 더 좋고 완벽한 세계
- 창조-타락-구속-회복

2. 구속사: 죄로 죽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다.
- 하나님은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 구원 계획 수립
-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야가 오실 것을 예언
- 때가 차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심
-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
- 종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음

- 1)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 백성들을 잘 훈련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갈 3:24).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를 보게 된다. 그리하여 신자는 불의한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율법을 지키게 된다.
- 2) 예: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 구원,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님의 죽으심, 제사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표, 요셉 은20에 팔림은 예수님의 팔리심, 광야 불뱀사건은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상징, 예언과 성취 사53:7→마27:13,14

## I. 구 약

구약 3부분으로 정리

역사서: 창, 출, 레, 민, 신, 수, 삿, 룻,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느, 에(17)

시가서: 욱, 시, 잠, 전, 아(5)

예언서(선지서): 사, 렘, 애, 겔, 단, 호, 율, 암, 욱, 욜, 미, 나, 합, 습, 학, 스, 말(17)

역사서 17권 정리 (창, 족, 모, 사, 왕, 포)

창조시대 → 창세기 1~11장: 인류 일반 역사

족장시대 → 창세기 12~50장: 이스라엘 역사 시작

모세시대 → 출애굽기 / 레위기 / 민수기 / 신명기

사사시대 →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 / 사무엘상 / 사무엘하

왕정시대 → 열왕기상 / 열왕기하 / 역대상 / 역대하

포로시대 → 에스라 / 느헤미야 / 에스더

### <성경 각권별 요약>

#### 1.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모세5경

##### <창세기>

- 1-11장: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고 타락했는가? 에덴동산(하나님 나라 출발), 아담의 타락, 아벨의 죽음, 노아홍수, 바벨탑(세상 나라의 본격 시작)
- 12-50장: 하나님 나라(구원역사)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에 건너간 이야기(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 <출애굽기>

-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애굽은 하나님나라 백성을 만드는 인큐베이터)
- 모세의 등장, 열가지 재앙, 출애굽, 시내산 11개월, 언약 맺고 율법 선포, 성막 완성
- 광야생활 약 1년간의 기록

##### <레위기>

- 율법과 성막에 관해 내용을 따로 모아놓은 책,
-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하나님 나라의 법)
- 출애굽 이후 약 1년 후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 <민수기>

- 백성의 숫자 즉 인구 조사를 한 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전쟁 대비한 병력 조사
- 민수기는 광야생활 약 39년간의 기록
- 중요 장소: 시내산(언약, 율법 수여), 가데스 바네아(12정탐꾼 보고 불신앙, 1세대 못들어 간다고 선고 받은 곳), 모압평지(모세가 가나안땅 들어가기 전 2세대 백성들을 가르친 곳)
- 가나안 땅 입구 모압평지를 정복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분배

#### <신명기>

- 신명(申命)이란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 이전에 주신 말씀의 반복
- 모세가 죽기 전 모압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 2. 사사시대: 여호수아/사사기/룻기/사무엘상,하

#### <여호수아>

-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등장
- 가나안 땅 정복과정과 분배 과정 기록(하나님 나라 영토 만들기)
-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세겔 언약):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 <사사기>

- 12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기록
- 가나안 족속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구원
- 왕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간 왕 없이도 잘 살아보아라는 뜻
- 세겔 언약 저버리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 상징적 사건: 미가 신상사건, 레위인 첩 사건 → 혼탁한 사회상
- 아,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울하게 마무리

#### <룻기>

- 몰락한 나오미 가정이 며느리 룻을 통해 회복되고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난다는 이야기
- 한 가문의 회복을 통해 암울한 사사시대의 한 줄기 희망을 보임
-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질 구원의 손길을 암시

#### <사무엘상>

-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다윗이 주요 등장 인물
- 책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주인공은 다윗
-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섞여 있음
-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역경을 다룸

#### <사무엘하>

- 전체가 다윗왕 이야기 (열왕기서에서 다윗 이야기 찾으면 안 됨)
-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왕은 다윗임을 부각

### 3. 왕정시대: 열왕기상,하/역대상,하

#### <열왕기상,하>

- 다윗 이후 왕들의 이야기

-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단되어 북이스라엘, 남유다
- 남북의 왕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 <역대상,하>

-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기록한 자기들 역사
- 남유다왕국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 북왕조 역사는 생략
- 왕상 1장은 솔로몬 이야기,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 시작
- 남유다의 뿌리는 아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 제사와 성전 중심의 기록

#### 4. 포로시대: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 BC 586년 남유다 멸망 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
-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치하에서 포로생활
- 페르시아(바사)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
- 1차 포로기(BC 605)에서 약 70년 만에 1차 귀환(BC 536)
- 1차 귀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 목표: 성전 재건, 그러나 외부세력 방해로 짓다가 중단(BC 534)
- 학개, 스가랴 주도로 중단된 성전건축 완성(BC 516)
- 에스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될 위기 속에서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호소해서 민족을 구원한 사건(BC 480년경), 부림절
- 2차 귀환(BC 458): 지도자 에스라, 이방인과 혼합되어 가던 유대인들 개혁, 영적 부흥
- 3차 귀환(BC 445): 지도자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

#### 시가서

##### <욥기>

- 신앙인의 고난과 그 이유를 다룬다.
- 아브라함과 비슷한 연대
- 욥은 왜 고난이 닥치는지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신다.
- 하나님은 응답 대신 자연 세계의 원리를 욥에게 물으신다.
-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욥 38:4-5)
- 자연의 이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단지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 <시편>

- 다윗의 지도하에 150편의 시를 모은 책
- 150편 중 73편을 다윗이 직접 지은 시로 간주해서 ‘다윗의 시’로 여김
- 그 외: 아삽(12편, 레위지파), 고라 자손(10편, 레위지파), 솔로몬(2편), 모세(1편) 등

-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 <잠언>

- 솔로몬이 주로 쓰고 정리한 짧은 교훈으로 된 말씀
- 삶의 기술을 다루는 실용적인 책이지만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기초한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 <전도서>

- 솔로몬이 지혜의 교사라는 입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한 교훈
- 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
-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전 2:11)
- ② 하나님이 정하신 현실과 한계를 받아들이라.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보려 애쓰지 말라)
-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전 1:17)
- ③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속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다.
-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 9:9)

#### <아가>

- 노래 중의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
- 솔로몬이 썼으나 솔로몬의 경험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지혜 교사였던 솔로몬이 결혼 관계 속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알리고 있다.(가요 가사를 썼다고 꼭 작사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문학적 장치이지 실제 인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는 희곡, 이들 사이에 합창단 역할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 하나님의 선물인 부부 간의 성과 사랑을 찬미하는 사랑의 시 모음집
- 너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이라는 영적 의미로 축소시킬 필요 없다.
- 창세기에서 깨어졌던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아가서에서 회복되고 있다.

#### 선지서(예언서)

##### 1. 분량에 따른 구분

- 대선지서 5권: 사, 렘, 애, 겔, 단
- 소선지서 12권: 호, 율, 암, 읍, 욥, 미, 나, 합, 습, 학, 스, 말

##### 2. 시대별 구분

- 왕정시대 선지서: 12권 (사, 렘, 애, 호, 율, 암, 읍, 욥, 미, 나, 합, 슥)
- 포로시대 선지서: 5권 (단, 겔, 학, 슥, 말)

#### <이사야>

- 시기: 남유다 아하스, 히스기야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
-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1-12장)
-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13-27장)
-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28-66장)
-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많이 기록하였다.
-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고난을 상세히 예언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 <예레미야>

- 시기: 남유다 멸망기(요시아~시드기야왕 때)
- 근동지방 최강대국 앗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떠오를 때 유다는 친애굽 반앗수르 노선
- 반앗수르 노선이던 유다왕 요시아가 앗수르를 도우려했던 이집트를 막으려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
- 요시아 이후 왕들의 불신앙 가속화, 나라의 국운이 점점 쇠퇴
- 이때부터 남유다는 신흥강국 바벨론 편에 서야할지, 애굽 편에 서야할지 갈팡질팡
-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항복 하라고 주장
- 예레미야는 왕궁의 친애굽파로부터 매국노 취급받으며 많은 박해를 받음
- 시드기야왕은 친바벨론 노선에서 친애굽으로 돌아서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

#### <예레미야 애가>

- 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 훗날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노래
-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하나님 뜻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짐

#### <에스겔>

- 시기: 남유다 멸망기(여호야긴, 시드기야), 포로기(느부갓네살)
- 바벨론 2차 포로(BC 597)로 잡혀간 후 바벨론에서 많은 환상 보게 됨
-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지 설명하고 위로하는 사역
- 유다의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
-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갈 수 있다고 현혹, 에스겔은 70년의 기간을 보내야 고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
-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심판 예언, 유다와 성전의 회복 예언

#### <다니엘>

- 시기: 남유다 멸망기(여호야김~시드기야), 포로기(느부갓네살~고레스)

- 바벨론 1차 포로(BC 605)로 잡혀간 후 바사왕 고레스(BC 536)까지 활동, 약 90세
-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관리로 지내며 세상 군주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오직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사건 때 왕이 처형했지만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이 7년동안 짐승처럼 지내리라 예언 성취, 벨사살왕의 연회에 나타난 손가락, 다리오왕 시절에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갇혔다 살아남)
- 느부갓네살 꿈 해석: 머리(순금)-가슴/팔(은)-배/넓적다리(놋)-무릎아래(쇠)-발(쇠/진흙) → 바벨론-페르시아-헬라-로마-열국시대, 둘이 날아와 신상을 깨뜨린다.(하나님 나라만 영원)

#### <호세아>

- 시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나라가 강성할 때 제일 타락
-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생활을 통해 영적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호소
-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 <요엘>

- 시기: 남유다 여호사밧왕
- 유다에 대한 회개를 촉구
-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배경이 되는 예언
-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욥 2:28-30)

#### <아모스>

- 시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예언
- 가장 부유했으나 불의와 탐욕이 극심했던 사회를 향해 정의와 공의를 외침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 <오바다>

- 시기: 남유다 여호사밧왕
- 에돔에 대한 예언, 형제 나라인 에돔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괴롭힘
- 이러한 에돔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심
-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옵 1:10)

#### <요나>

- 시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 하나님이 요나에게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는 소식 전하라 했지만 거절
-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후에 니느웨로 가서 전함

- 니느웨의 회개로 심판이 철회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나
  - 뺏겨진 선민 의식 고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여줌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욥 4:10-11)

#### <미가>

- 시기: 남유다 아하스, 히스기야왕
-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가, 남유다에서는 미가가 정의를 외친 선지자
-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 전파
-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권력자들의 악행을 고발, 멸망하겠으나 회복을 약속
-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 <나훔>

- 시기: 남유다 요시아왕
- 요나 이후 150년이 지나면서 다시 교만에 빠진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
- 제멋대로 주변 민족을 학대하고 심판하는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

#### <하박국>

- 시기: 남유다 여호야김왕
- 악인들은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유다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응답
-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게 옳으냐고 질문
-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살 것이다.
-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도 오래가지 않는다.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

#### <스바냐>

- 시기: 남유다 요시아, 여호야김왕
- 왕족 출신으로 요시아왕 때 같이 종교적 활동
-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
- 유다의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도 선포
- 다시금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사랑하실 것이다.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 <학개/스가랴>

- 시기: 바사의 다리오왕
-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사의 고레스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

-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 성전 재건 목표(BC 536)
- 주변 방해로 공사 중단(BC 534)
-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독려, 성전 건축 재개(BC 520)
- 성전 건축 완성(BC 516)
-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학 1:4)

#### <말라기>

- 시기: BC 450-430
-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BC 520), 에스라의 종교개혁(BC 458), 성벽 재건(BC 444)이 있었으나 다시금 유다공동체는 영적 침체의 길로 향함
-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심판과 회복
-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구약의 막이 내림
-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